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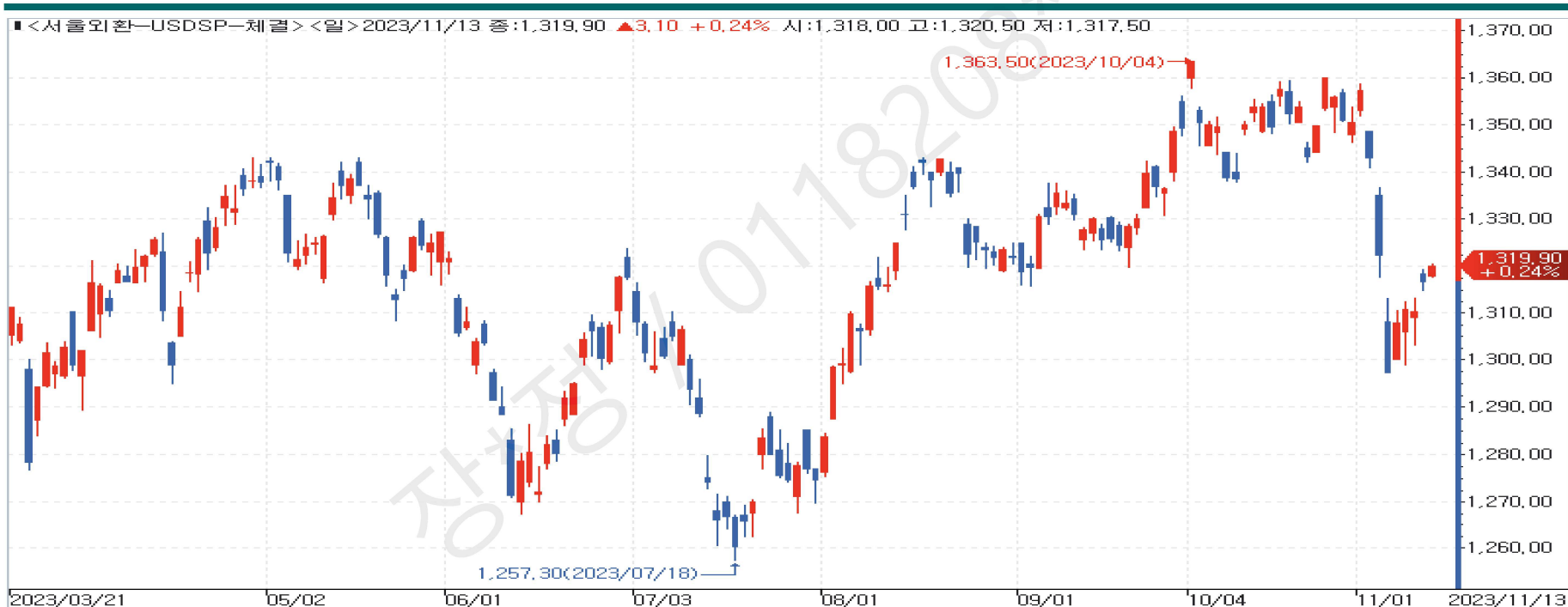
자금시장영업부

2023. 11. 13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6~11/1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10월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 확산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등에 환율은 1,290원대급락. 그러나 미 국채 입찰 앞두고 수급 우려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과 저점 인식에 따른 결제수요 유입 등에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구두개입에 의한 위안화 강제 영향 속 하락 압력 받았으나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앞두고 경계감 높아진 영향으로 상승
- 후반, 연준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중요성 강조하는 상황에도 금리 동결 기대감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상승 압력 받았으나 조선업체 수주 소식과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출회 등에 상단 제한되며 1,310원대 중반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 전주 파월 의장의 추가 금리인상 배제하지 않겠다는 언급에도 시장 참가자들의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기대 유지 등이 금주 달러 약세 요인으로 보임. 하지만 미시간대 11월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가운데 주 10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환율 변동성은 다소 높은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요인도 단기적 위험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반영하며 환율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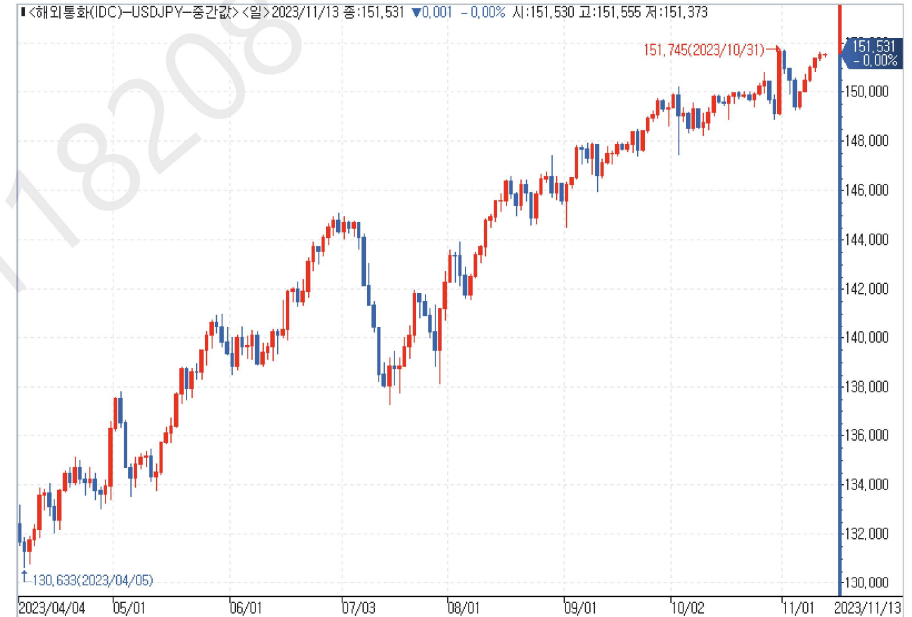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08.0	1,319.3	1,297.2	1,316.8	+8.8

예상거래범위

1,310원 ~ 1,325원



엔·유로화 동향 (11/6~11/10)



유로화 동향

- 주초, ECB 당국자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두는 발언에도 유로존 주요국 경제지표 둔화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속 달러 대비 약세 출발. 이어 독일 9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1.4%로 예상치 하회하는 등 부진한 모습 이어지면서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ECB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강조하고 유로존 9월 소매판매 지표 다소 개선되면서 소폭 강세
- 후반 들어, 파울 Fed 의장의 추가 긴축 가능성 언급과 미 재무부 국채 입찰 부진 속 국채금리 급등한 측면이 달러 강세 견인하면서 약세로 재전환. 이어 라가르드 ECB 총재가 2분기 이내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영향으로 유로화 가치 소폭 반등 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32	1.0756	1.0657	1.0685	-0.0047

엔화 동향

- 주초,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연이어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 시사하면서 약세 출발. 이어 9월 금정위 의사록에서 완화적 스탠스 재차 확인되면서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BOJ 총재가 일본의 기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다고 강조하는 등 비둘기적 발언 이어가면서 약세 심화
- 후반 들어, 연준 인사들이 물가 상승압력 지속에 대한 우려감 드러내는 반면, BOJ는 YCC 정책 수정이 긴축으로 인식될 가능성 경계한 점이 대조되면서 약세 지속. 이어 달러당 151엔대 상회하며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높아진 가운데 추가 약세 다소 제한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9.4	151.6	149.2	151.5	+2.1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6~11/1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고용지표의 둔화 소식에 미 국채 금리가 급락한 영향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미국채 금리가 상승세로 전화했으나, 국내 기관투자자의 국고채 시장 저가 매수 확대 등으로 보합권 흐름
- 중반 들어, 중국 경제지표가 크게 부진함에 따른 원유 수요 약화 우려 부각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잠재워지며 글로벌 금리 하락 추세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 흐름
- 후반 들어,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 등의 요인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 추세 속에 중국 경기지표의 불확실성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금리 하락세 지속. 주 후반, IMF 콘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의 추가 긴축을 열어놓는 등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영향 반영되며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강화에 따라 급등 양상 출발. 이어 전일의 공매도 조치에 대해 수급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불안이 확대된 가운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등으로 급락 전환
- 중반,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차익 실현 니즈가 이어지며 하락 추세 지속
- 후반 들어, 중국 물가지표 부진 등에 따른 영향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강화 등으로 소폭 상승 후, 주 후반,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30년 만기 미 국채 입찰 부진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뉴욕 증시 부진 영향이 반영된 가운데 대내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장세 속에 하락 마감